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8월 22일(주일) 제1357호

COVID-19로 인해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들의 가족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코로나19 순직 선교사 가족위로예배
8월 25일 19시 30분 서빙고 본당(유튜브 중계)

온누리교회가 코로나19 순직 선교사 가족을 위한 위로예배를 드린다. 오는 8월 25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유튜브 중계)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순직 선교사 가족위로예배에는 유가족과 이재훈 담임목사, 한정국 이사장(한국위기관리재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순직 선교사 가족위로예배는 박종길 목사의 사회, 임훈 장로의 대표기도, 코로나19 순직 선교사 추모영상 상영, 크룩스(CRUX)의 특순, 이재훈 담임목사

의 설교, 한정국 이사장의 위로사, 유가족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순직 선교사 가족위로예배에서 온누리교회는 지난 8월 7~8일 봉헌한 코로나19 순직 선교사를 위한 비전헌금 7억7천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순직 한인 선교사 유가족 위로금, 현지인 선교사 유가족 위로금, 심리치료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순직 한인 선교사 유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성도들의 관심과 중보기도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다.故

박창성 선교사(우간다)의 아내 김진순 선교사는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故 이신숙 선교사(브라질)의 아들 이경승 선교사는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선교를 내가 이룬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고백했다.

코로나19 순직 한인 선교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기도와 후원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로 순직한 한인 선교사는 25명이다.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문의: 02-795-9085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실시간 선교플랫폼 ‘온커넥트’ 오픈

선교사와 성도가 함께 선교하는 장(場)

선교사와 성도를 잇는 선교플랫폼 ‘온커넥트’가 지난 8월 21일(토)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공개됐다. 온커넥트는 선교사와 성도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선교하는 장(場)이다(관련기사 4면).

온커넥트에서는 번역, 통역, 디자인, 선교사 자녀 교육, 의료, 중보기도, 선교사 국내 체류 지원 등 선교사와 선교지의 필요를 성도들의 재능기부와 지원으로 채우는 시스템이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선교플랫폼 온커넥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선교지에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성도들이 선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온커넥트는 선교사와 성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에게는 2000선교본부에서 온커넥트 계정을 일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은 개인적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하면 된다. 온커넥트를 이용하고 싶은 미등록교인은 온커넥트 고객센터 게시판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3215-3211

수용 인원 10% 최대 99명 예배당 예배

‘예배당 예배 예약’ 필수

예배당 예배에 전체 수용 인원 10%,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누리교회 토요일예배, 일요일예배, 새벽기도회를 비롯한 주중예배를 예약하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서빙고온누리교회는 일요일예배 1부(정원 300명), 일요일예배 2부(정원 240명), 일요일예배 4부(정원 240명), 일요일예배 5부(정원 80명)를 제외한 주일예배에 본당 1, 2층과 부속실을 합쳐서 270명씩 참석할 수 있다. 양재온누리교회는 토요일예배에 263명, 일요일예배 1~2부와 6부(열린새신자예배) 238명, 일요일예배 3~4부 285명씩 사랑홀과 각 부속실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 부천 100명, 인천 100명, 수원 70명, 대전 60명, 대전 세종교육관 48명, 평택 30명, 남양주 19명, 강동 40명, 양지 107명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당 예배 예약’을 반드시 해야 한다.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된다.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로 모여라!

9월 7일 개강 ...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Zoom)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Onnuri Online Community: 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9월 7일(화) 개강한다. 화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줌(Zoom)으로 진행된다.

9월 7일 라이브 콘서트로 시작하는 이번 학기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박종길 목

사 ‘하나님과 관계’, 이기원 목사 ‘사람과의 관계’, 여성민 목사 ‘생명의 삶’을 주제로 모임을 인도한다. 온라인커뮤니티 참가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커뮤니티 참가를 신청하면 교회에서 참여 링크(Zoom)를 보내준다. 지난 학기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개인 사정으로 교회나 공동체 소속할 수 없었던 성도, 공동체 활동에 무관심했거나 혼자 신앙 생활하는 성도, 공동체에 등록하지 못하는(무공동체) 성도, 전도 대상자, 구도자까지 포함하는 맞춤형 온라인 공동체이다. 온라인커뮤니티 담당 목회자와 리더들이 개인 신앙상담, 온라인 심방, 중보기도 등 신앙생활 전반을 돕는다.

문의: 02-3215-321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이 목사, 봤어?’ 한마디에… 낮은 곳에서 임한 신앙 깨달아”

고 하용조 목사 10주기… 이재훈 목사가 말하는 그의 삶

고(故) 하용조 목사 10주기 추모예배가 지난 2일 경기도 양지온누리교회 하용조 기념채플에서 개최됐다. 하 목사는 1985년 온누리교회를 개척해 27년간 사역하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다. 그는 온누리교회라는 지역교회 목사로서 머물지 않았다. 복음과 성령을 키워드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강해설교와 말씀묵상, 성령목회, 경배와찬양, 문서선교, 방송선교, 일본선교 등을 펼쳤다. 육체가 건강해서가 아니었다. 청년 때부터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무수한 육신의 질고 속에 있었으나 쉬지 않고 복음을 외쳤다. 간암으로 7차례의 대수술을 받았고 병상에서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삶과 목회, 설교와 선교사역을 담은 ‘하용조 목사 평전’(두란노)도 최근 출간됐다. 지난 5일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를 만나 하 목사의 삶을 들었다.



-하용조 목사가 생전에 사용했던 목양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 목사의 책장도 남겼다고 들었다.

“서재는 하 목사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리모델링했고 목사님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는 곳이다. 두란노에서 발간한 신앙·신학 서적들이 유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가끔 하 목사의 손때 묻은 메모도 발견하고 밑줄 친 부분도 확인한다.”

-만약 하 목사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목사님은 생전에 당신이 은퇴하면 어떤 사역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CGNTV다. 그는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CGNTV를 비롯한 미디어 플랫폼을 더 발전시켰을 것이다.”

-하 목사가 한국교회에 남긴 가장 큰 발자국은 무엇이라 보는가.

“한마디로 말해 복음과 문화를 연결한 것이었다. 하 목사님은 복음을 시대의 문화에 정확하게 적용해 전했던 전달자였다. 그는 어떻게 기독교 복음이 순수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문화의 옷을 입고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 결과 하 목사님이 시도했던 다양한 목회 패러다임이나 문화를 대하는 시각은 한국교회의 보편적 원리로 받아들여졌다. 하 목사님은 복음과 문화의 건강한 상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비평적으로 수용해 변화시킨 선구자였다.”

-하 목사는 일생을 아픈 몸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데도 항상 창의적이었다. 하 목사에게 질병은 무엇이었나.

“하 목사님을 생각할 때 늘 떠오르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의 핵심 말씀,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10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목사,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잡음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아?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당신이 아주 아팠기 때문에 에너지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에 집중했다. 둘째는 바로 이 때문에 하 목사님은 다양한 사역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었다. 그가 자율권을 주는 ‘임파워링’ 리더십을 짚을 때부터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하 목사 10주기를 맞았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이 돼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했다. 이는 편리함과 안락함, 안전함만 추구하는 우리의 나약한 신앙을 세차게 흔들어 깨운다. 하 목사님의 삶은 모험과 도전, 헌신과 자기희생의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하 목사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분으로서 가장 인상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

“하 목사님을 대형교회 목사로서 봤던 분들은 화려함을 추구한 목회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서민적이고 소탈했다. 성도들도 폭넓게 품었다. 대기업 회장부터 가난한 이웃까지 차별이 없었다. 교도소 재소자들의 편지도 많이 받았고 출소자 일부는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하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하 목사님은 새벽기도가 끝나면 늘 교회 근처를 돌아보셨



다. 어느 날 본당 쪽에서 내려온 목사님은 ‘이 목사, 봤어?’ 하셨다. 처음엔 성도를 말하는 줄 알고 ‘아무도 못 봤다’고 했다. 그런데 목사님은 ‘못 봤어? 다시 본당 갔다 와 봐’ 하셨다. 다시 아무도 없다고 하자, 목사님은 ‘다시 가 봐’ 하셨다. 그제야 출입구 커튼 한 쪽이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하 목사님은 ‘그게 보여야 담임목사가 되는 거야’ 하셨다. 이제 담임목사가 돼 보니 안 보이던 게 보인다. 나 역시 교회 주변을 다니면서 불 끄고 먼지 닦고 휴지를 줍는다(웃음).”

-하 목사님은 부교역자나 장로님들의 차량도 수시로 이용했다 들었다. 새벽기도회 후엔 주차 봉사자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말도 회자된다.

“제가 전임 부교역자 시절 소형차를 탔는데 여러 차례 하 목사님을 그 차로 모셨다. 하 목사님은 뒷자리도 아니고 항상 운전석 옆에 타셔서 허물없이 대하셨다. 운전하다 졸릴 때는 아이스크림도 사주셨다. 그런 식으로 장로님이나 부교역자들의 차를 거리낌 없이 이용하셨다. 어디를 가든 항상 부교역자들과 함께 다녔고 그것이 중요한 목회 멘토링이었다.”

/ 신상목 기자(smshin@kmib.co.kr)

* 이 기사는 2021년 8월 13일 [미션라이프]에 실린 내용을 전재하였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코로나19 재난은 시험의 기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인지를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모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흠어져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깊이 사모합니다만 이사가 말씀대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조차 마땅한 밝은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돌이키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배에 대한 교훈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예배’라는 단어가 13번 사용되었는데, 그중에서 10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물가에서 어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누는 대화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삶 전체를 알고 계시고, 현재의 삶과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자 그 여인이 매우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영혼까지 벌거벗겨진 것 같은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웠고, 도망가고 싶었고,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화 주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대화 주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우물가 여인과 같이 목마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된 해갈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해갈은 어디서 올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 속에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 주제를 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곡을 찌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조상 때부터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백성이 들어갈 때 그리스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리스산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을 근거로 그리스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라고 주장하며 고집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는 성전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주전 128년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산에서 예배할 것을 집착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이후 역사서, 예언서, 시편 등 모든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받아들였기에 예루살렘을 주목했습니다. 유대인

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을 명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갈등이 예수님 시대에 표면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유대인으로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리스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제3의 장소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 다. 예수님께서 “장소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패러다임 시프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가에 집중했던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 혹은 미신에 가까운 종교일수록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계시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릴지, 어떤 방법과 모양으로 할지는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성막도 만들라고 하시고,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여러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한 시대 혹은 자기가 원하는 시대 역사를 토막 내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고착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산에 고착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집착하고 고착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신약성경의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 새로운 시대, 놀라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고”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23~24절).

당위성을 말씀하신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거듭나야 한다”(요 3:7)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자가 들려야 한다”(요 3:14)입니다. 예수님 죽음의 필연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악을 대속하는 대속제물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예배드려야 한다”(요 4:24)입니다. 이 세 가지 절대적인 당위성은 서로 연결됩니다. 거듭남, 십자가의 복음, 참된 예배는 연결되고, 한 문장으로도 만들어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영혼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영혼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할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고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름을 합해서 한 단어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께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아버지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에게 상처 준 아들이 허랑방탕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끌어안고,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아

들이 큰 업적을 남기고 돌아온 것처럼 축제를 벌여 줄 정도로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하고, 완전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시점에 용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때든 아버지는 우리를 끌어안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함께 축제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타락한 양심이지만 양심이 있어서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기에 그저 종으로 여겨도 됩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양심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양심이 작동해야 할 때는 작동을 안 하고, 불필요할 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양심이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는 양심을 무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는 양심이 살아나서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배와 상관없이 산 사람이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오랜만에 예배에 나가?’라고 생각한다면 양심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했는지를 기준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끌어 앉으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둘째,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보다 우선하는 것이 영적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에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천사도 존재하고, 악령도 존재하고, 보이는 물질세계 위에서 영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통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면에 계속〉

“선교하고 싶으면 여기로 오라!”

실시간 선교플랫폼 ‘온커넥트’ 오픈



온커넥트에서는 실시간으로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를 펼쳐나갈 수 있다.

“이달 말 병원 진료차 한국에 가는데 1주일 동안 묵을 숙소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님! 마침 우리 집에 남는 방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주일학교 교재를 만드는데 번역과 디자인을 해줄 분이 필요합니다.”

“번역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온커넥트’는 실시간으로 선교사와 성도들

이 소통하며 함께 선교하는 온라인 선교플랫폼이다. PC, 스마트폰 등으로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와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000선교본부는 더 많은 성도들이 쉽고 편하게 선교에 참여하고, 선교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온커넥트를 개발했다. 온커넥트는 도움이 필요한 분야

와 내용, 기간과 기능 등에 따라 ‘온케어’, ‘온프로젝트’, ‘온마켓’, ‘온기도’, ‘온향기’로 구성되어 있다.

‘온케어’는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번역, 통역, 내레이션, MK(선교사 자녀)교육, 의료/상담, 차량 및 숙소를 지원하는 게시판이다. 성도들이 선교사들의 요청과 일정을 확인하고 지원하면 된다.

‘온프로젝트’는 건축, 아웃리치, 의료보건 활동 등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게시판이다. 국내외 지역으로 나누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할 수 있다.

‘온마켓’은 선교사가 필요한 재능을 요청하고, 성도들이 기부할 수 있는 재능을 등록하는 게시판이다. 재능기부 외에도 물품을 요청하거나 등록해도 된다. 출판물 교정작업, MK 수학 교육, 해외 한식당 메뉴판 만들기 등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온기도’는 중보기도 게시판이다. 선교사가 기도제목들을 업로드하면 온커넥트 이용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면 된다.

‘온향기’는 온커넥트로 이어진 다양한 선교 현장 이야기와 간증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게시판이다. 2000선교본부에서 성도들의 작은 도

움이 선교지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미담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온커넥트를 활용해서 선교에 참여하고, 재능을 기부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정말 풍성하다. 중국어 성경공부 교재를 번역한 김은애 성도는 “책을 번역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섬기면서 누린 기쁨과 감사가 훨씬 컸다”고 고백했다.

재능기부팀 선교사 자녀 캠프에 참여한 구본혜 성도는 “다음세대와 선교를 새로운 비전으로 품고 인생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선교플랫폼 온커넥트 제작에는 30여 명의 개발자와 IT전문가 성도들이 참여했다. 온커넥트는 웹사이트(<https://www.on-connect.org>)로 접속하거나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온커넥트’ 앱을 다운로드해서 이용하면 된다. 선교사들에게는 일괄적으로 계정과 비밀번호가 전달될 예정이고, 성도들은 회원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미등록 성도는 2000선교에 문의하면 회원가입 할 수 있다.

주소: <https://www.on-connect.org>

문의: 02-3215-3211



“탈북청소년들을 섬겨주십시오”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사랑학교 & 기쁨의 학교

‘통일의 일꾼’, ‘통일 선교사’

탈북민과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한국 교회의 기대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런데 탈북청소년들의 생활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학업을 이어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청소년 두 명 중 한 명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다섯 명 중 한 명은 정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탈북청소년들의 비중이 62%까지 증가하면서 학업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다.

그래도 한 줄의 빛이 되어주는 곳이 있다.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남북사랑학교 & 기쁨의 학교’다. 심양섭 교장은 남북사랑학교 & 기쁨의 학교를 탈북청소년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는 학교라고 소개했다.

“많은 탈북청소년들이 탈북과정에서 신앙이 생깁니다.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탈북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탈북청소년 대부분이 그 뜨거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남북사랑학교 & 기쁨의 학교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한국 사회에서 적절하고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신앙과 꿈을 함께 키워주는 학교입니다.”

탈북청소년들이 한국말을 못 해도 남북사랑학교 & 기쁨의 학교에 입학한 하면 곧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초, 중, 고 검정고시까지 통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금까지 많은 탈북청소년들이 남북사랑학교 & 기쁨의 학교에서 검정고시 통과하고 더 큰 꿈을 찾아 대학에 입학했다.

지혜(가명)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간호사가 꿈이다. 지혜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학업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남북사랑학교 & 기쁨의 학교 교사들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학 입학 전후로 멘토링을 받으면서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초 학력을 보강했다.

내년에는 남북사랑학교 & 기쁨의 학교 졸업생 10명이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다. 지금 남북사랑학교 & 기쁨의 학교에는 예비 대학생들과 말이 통하고, 고민을 나누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꼭 필요하다.

“입시전략을 잘 짜면 대학진학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이 탈북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탈북청소년들의 생



남북사랑학교 & 기쁨의 학교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의 신앙과 꿈이 영글고 있다.

각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멘토들이 꼭 필요합니다.”

직업특강, 3D프린터 교육, 창업교육 등을 해줄 봉사자도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도움은 급식봉사자다.

“어느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는 지역 교회 권사회에서 돌아가면서 매일 급식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북사랑학교 & 기쁨의 학

교에도 급식봉사자가 필요합니다. 탈북청소년들에게 따뜻하고, 맛있고, 영양 좋은 한 끼 음식을 대접해 주십시오.”

주소: 서울 구로구 고척로 28(오류동 11-50) 예원빌딩 6층 남북사랑학교

문의: 02-2688-0691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181-337733 (사) 남북사랑네트워크

전문가 기고

인간의 유한함과 죽음, 그리고 다음세대

죽음과 영생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앙공동체,
기업CEO,
칼럼니스트)

오늘은 하나님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다 하늘나라로 가신 두 분의 주 장로님(주대준, 주광조)이 생각한다. 얼마 전 20년 지 기인 주대준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긍정

적인 분이셨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통화하고 식사도 같이했던 터라 충격이 컸다. 주대준 장로님이 산골 마을에서 고아가 되었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나고 꿈을 키웠다고 한다. 전산을 전공해서 다섯 명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청와대 전산실장과 경호차장으로 일하며 청와대 신우회를 만드셨다. 우리나라 최고 보안전문가로 대학총장까지 역임했고, 해외선교는 물론이고 국내 직장 복음화를 위해 누구보다 강한 열정으로 헌신해 온 하나님의 사람이셨다. 그런 분이 선교회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 기독교 사학을 운영하는 우리 부부에게 늘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탈북자 자녀를 위한 학교를 우리 학교(여주 대신고등학교) 부지에 설립해서 통일을 준비하자고 하셨었다.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많은 분이셨는데 너무 아까운 분이 가셨다고 모두 안타까워했다. 아침 출근길에 오늘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 비쁜 외중에도 노래 잘하는 귀여운 손녀들(유튜버)과 매일 통화하며 오늘은 몇 명을 구독자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던 함박웃음 할아버지가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또 얼마나 많았을까?

주대준 장로님이야 공직에서 은퇴하고 주로 봉사활동을 하셨기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갑작스러운 죽음은 남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고인을 떠나 보낸 가족들이 슬픔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가장이 운영하던 회사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기업 승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증여세 및 상속세, 누진세 때문에 포기하는 가족도 보았다. 재산을 너무 일찍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부모한테 소홀하다며 사후 유언장만 작성해 놓은 분들도 있다. 아마 통장 비밀번호도 본인만 알고 있다가 은행 계좌 안에 영원한 비밀로 묻히는 자산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의 계보를 보면 선대 왕의 선정이나 신앙 유산이 자녀한테 잘 계승된 경우가 많지 않다.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위가 계승되거나 전혀 새로운 제3의 인물이 반란



을 일으켜 왕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죽음이라는 이벤트를 준비하다

주대준 장로님 소천 이후 같은 기도모임을 해온 교수님이 전화를 주셨다. 자신은 죽음을 준비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부부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며 특이한 제안을 하셨다. 죽은 다음 지인들이 빈소를 찾아오면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볼 수는 있겠지만, 직접 인사는 할 수 없으니 가까운 지인들과 미리 천국환송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었다. 대표기도와 설교도 넣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10분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주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외롭지 않게 힘이 되어준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순서를 갖자는 것이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해 온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서로는 환자가 끝까지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앞서 가족이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주님 앞에 서는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이벤트는 죽음과 영생 앞에서 사람을 진지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과 물질을 의미 있게 사용하게 만드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다. 어떤 집안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면서 남겨진 엄청난 재산을 아내가 교회나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있다. 받는 입장에서야 감사한 일이지만 평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충분히 상의하고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뜻을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녀들의 동의가 없을 때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얼마 전 CGNTV 후원 담당자 휴대폰에 문자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선천적 척추장애를 안고 태어나 보육원에서 자란 분이었는데 장애인시설을 만들어서 버려진 장애인들과 함께 지낸 지 35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분은 청소일을 하며 힘겹게 돈을 모으면서도 버려

진 장애인들이 그곳에 와서 한두 달 지내면 조금씩 영과 육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25년 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시설에 와서 아름답게 섬겨주었다. 요즈음 건강이 쇠약해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시설을 제외한 개인의 모든 재산을 CGNTV에 현금한다는 사연이었다. 그분은 이 현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담임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갔는데 병상에 누워 산소줄을 끼고 있으면서도 햇살처럼 밝고 빛나는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체구는 왜소했지만 세상 누구보다 큰 분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그분은 인간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과 물질, 죽음과 영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분이라 생각한다.

또 한 분의 주 장로님은 극동방송 부사장을 지내신 주광조 장로님이다.故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드님이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모진 고문 끝에 아버지가 순교하고, 홀로 어린 나이에 남하해서 고학으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 자수성가한 분이다. 주기철 목사님을 기념하며 교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신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하셨다. 나는 일간지와 교계지에 기사를 내드리며 자주 대화를 나눴었다. 주광조 장로님이 얼마나 검소한지 모나미 볼펜에 심을 갈아 끼워 사용했고, 주스도 물을 타서 마시는 분이셨다. 하지만 부서별로 직원들한테 회식비를 주시고, 남을 돕는 일에는 인색함이 없으셨다.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오정모 사모님도 고개가 숙여질 만큼 믿음의 지조를 지킨 여성이었다. 일제 이후 북한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항거해 순교했다면서 하사금을 내렸는데 거절했다. 오히려 더 큰 핍박이 시작되어 자녀들이 학교도 갈 수 없었고 굶는 게 일상이었다고 한다. 사모님이 맹장수술을 할 때도 주님은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이 죄인이 무슨 낮으로 그 고통을 피해가겠느냐며 마취 주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눈을 뜬 채 배를 가르고 맹장을 제거하는 극한의 고통을 견뎌내셨다고 한다. 그러한 신앙 유산을 본받은 주광조 장로님은 매년 1월 1일이면 유서를 업그레이드하는 일을 하셨다. 자수성가로 부를 이룬 분이었지만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배려만 해주고, 재산의 대부분을 교회와 선교단체에 기증한다는 내용이었다. 늘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 앞에서 겸허한 자세를 가진 분이었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뜻에 동의한 상태였다.

이탈리아 모르텐 베네드센 인시아드대 교수가 기업 승계와 관련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연구논문을 올해 초 발표했다. 기업도 승계를 하려면 20년을 준비시키라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기업의 급속한 발전이나 집안의 분란이 있을 때 전문경영인을 외부에서 영입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자산인 인맥이나 위기 때의 결속력을 위해 가족이 승계하기도 한다. 일찍부터 경영인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다면 다른 기업에서 충분한 훈련의 기회를 가지고 자사에 영입하는 경우도 많다. 가족이 승계하든, 전문경영인을 세우든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기업뿐 아니라 교회와 단체, 가정에서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기독교 언론인들의 주류 모임 두 개가 있었다. 한 곳은 차부장급 이상의 기자나 PD만 모이는 모임이었고, 다른 하나는 언론사별로 총무, 광고, 기술, 홍보 등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신우회 모임이었다. 전자는 방송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너무 강해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신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타 부서 소속원들에 대해 배타적이었다. 나는 방송언론인들이 조기 명퇴를 하는 특성상 간부들은 현역에서의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모임이 경로당처럼 되지 않으려면 다음세대를 키우기 위해 직급이나 소속 등을 초월해서 두 모임을 합치자고 제안했지만 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 때 간부급들이 대거 명퇴나 해직을 당하면서 언론인 모임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광고나 수신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송과 언론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 복음을 중심에 둔 언론인들과 뜻을 모아 두 모임을 합쳤고 지금까지 기독교언론인클럽(CJCK)으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함을 깨달을 때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음세대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가짐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잠 9:10).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기대감에 많이 설렘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결혼 선배들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소망한다. 나는 이 소망을 ‘거룩한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 이유는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이뤄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는 것 못지않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행복한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은 항해와 같다. 목적지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파도를 뚫고 나가는 항해는 참으로 멋진 일이다.

결혼을 약속한 형제자매들도 지금까지 항해를 해왔다. 각자의 배를 타고 선장 되시는 예

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에 결혼이라는 항구에 이르렀다. 하지만 결혼은 항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결혼할 형제자매들은 각자의 배에서 내려 완전히 새로운 배를 타야 한다. 출항 준비와 모든 운행을 성격과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 날씨가 좋아서 순조롭게 배가 나아갈 때도 있겠지만, 큰 파도가 밀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려

그들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담대하게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결혼을 약속한 형제자매들이 항상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기뻐하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비가 몰아쳐도, 바람이 불어도 조종석에

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부와 가정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다. 매일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보시는 가정을 누가 감히 넘볼 수 있겠는가.

셋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알 때 할 수 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가족 간의 사랑, 일터의 즐거움, 결혼의 기쁨 등이 모두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감사할 수 있는 예비부부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항해가 어색하고 힘이 들어도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이 넘치는 부부의 항해를 결단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모든 예비부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윤현규 목사
(갈렐청년부)

“결혼이라는 항해의 원칙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

움도 겪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항해를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말씀으로 결혼 항해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생길만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교회에 명령했다. 이 말씀은 원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글이다. 바울은

계신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다.

둘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성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며, 주님의 뜻을 제시해주시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새로운 배를 타고 출항할 형제자매들은 이제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함으로써 주님의 인도하심에 세밀하게 반응해야 한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의 영적 친밀감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친밀감이 매우 중요하다. 부부의 친밀감은 정서적 친밀감, 인지적 친밀감, 육체적 친밀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적 친밀감이 포함된다. 친밀감은 서로가 느끼는 다정다감함이라 할 수 있다. 서로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깊은 하나 됨의 결속력을 느끼고 경험하는 인지적, 정서적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사랑이라고 고백한다. 그런데 어찌 보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친밀감을 누리하고자 하는 기대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친밀감을 추구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바람이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어서 친밀감을 깊게 느끼거나 경험하는 부부는 건강한 부부이다. 결혼 만족도가 높은 부부다. 그러나 친밀감보다 단절과 거절을 자주 경험하는 부부는 갈등하는 부부, 위기의 부부라고 할 수 있다.

친밀감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친밀한 부부는 인지적, 육체적, 영적 친밀감 영역에서 높은 친밀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친밀감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 중에서 한 부분이라도 낮은 친밀감을 느낀다면 전체적인 부부의 친밀감 만족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친밀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특히 신앙인에게 영적 친밀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적 친밀감은 크리스천 부부에게 매우 중요하다.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는 영적인 친밀감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자신과 상대방의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까지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부가 영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부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기도, 말씀 묵상과 나눔, 봉사 등을 통해서 영적인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배우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며, 격려와 지지를 해야 한다.

나도 아내와 갈등이 몹시 심했을 때가 있었다. 서로 영적으로도 매우 소원하고 갈등을 겪었을 때였다. 그 시기 아내와 나의 갈등이 극에 달했고, 서로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다. 결혼 생활에 행복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다. 불행감과 우울감만 가득했다. 나는 도무지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하시며 마음 깊이 영적 깨달음을 주셨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생각해보니 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 그 깨달음이 있는 즉시 아내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아내의 마음이 공감되었다. 아

내에게 냉랭했던 나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한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부부의 영적 친밀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 부부 사이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3:7).

성경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말씀한다. 아내를 귀히 여기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를 쉬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너무 당연하게 기도를 포함한 모든 영적인 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가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며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다.

부부가 영적으로 친밀감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기도제목을 정기적으로 물어야 한다.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기도제목, 가족의 기도제목을 묻고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다양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소홀해질 수 있다. 서로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소홀해지면 부부의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다. 이 점을 유의하며 배우

자만을 위한 기도시간을 꼭 마련해야 한다.

“여보 같이 기도합시다!”라는 말 한마디가 어느 때는 “여보 사랑해요”라는 고백보다 어색하고 어려울 때가 있다. 하지만 함께 나누는 기도가 사랑을 더 크게 만들고, 친밀감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부가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영적 데이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이가 먼저 “여보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제안하면 된다. 부부가 함께하는 영적 데이트는 산책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데이트보다 부부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부부가 영적 친밀감을 누리는 것은 건강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부부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다.

꼭 시간을 내서 영적 데이트를 즐겨보자. 영적 친밀감을 깊이 누리는 은혜의 시간을 계획하면 좋겠다. 부부만의 시간을 내서 서로 기도제목을 묻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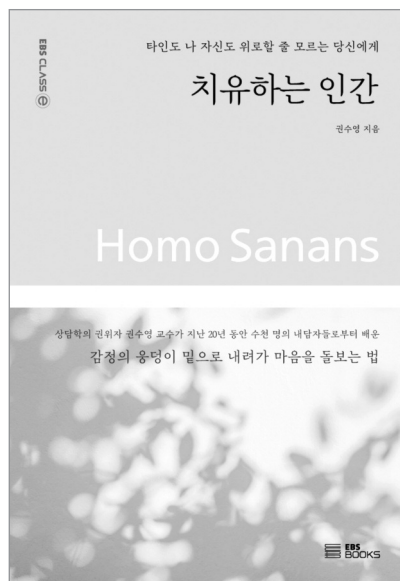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치유 받아 치유하는 인간



〈치유하는 인간〉

권수영 저 | EBS BOOKS | 16,000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만의 원리’ 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각자에게 독특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자신에게 주신 특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 인생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내가 깨우친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했다는 것이다”(전 7:29).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고 바르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여러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혼탁하게 만든다(전 7:29). 하나님께서는 나를 A로 창조하셨는데, 세상의 가르침은 B가 맞다고 우기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은 C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설파한다.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다른 소리에 현혹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적 자아’를 잃고 만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기’를 찾기보다는 다른 불순물이 ‘자기’를 잠식해서 ‘거짓 자기’로 살아가게 된다. 문제는 ‘거짓 자기’로 살다 보면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며, 어느 순간 실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A로 창조하셨고, 내게 주신 A의 능력을 잘 발휘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데 계속 다른 길로 향하다 보니 내게 맞지 않는 옷이 나를 얹매고, 옥죄는 꼴이 되고 만다.

연세대 목회(기독교)상담학 권수영 교수는 책 〈치유하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자기’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서 자신이 아픈 줄도 모르는 지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힐링(Healing)을 선물한다. 또한 저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자기’를 찾아서 ‘치유를 받아 치유하는 인간’이 되라고 한다. 그래서 책 〈치유하는 인간〉의 부제목이 ‘타인도 나 자신도 위로할 줄 모르는 당신에게’다. 위로의 경험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물하는 책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수용’ 받아야 하는 존재다. 어떠한 편견에 둘러싸여서 그 편견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거부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니라 세상이 만든 모습으로, 세상이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짓에서 도망쳐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신만의

창조 원리’를 발견해야 한다. 창조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적용 방식은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다.

저자는 심리학을 신학적으로 잘 설명한다. 오히려 심리학이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 신학적으로 보완한다. 심리학이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한 연구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한다. 여러 사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중독치료 자조모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12단계’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저자는 이 프로그램을 ‘힐링의 12단계’라고 부른다. 권수영 교수는 이 프로그램이 종교적 의도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마치 종교기관에서 만든 전도지 같은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자.

1단계는 ‘우리는 중독에 무력했으며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수용의 태도로 시작한다. 2단계는 인간보다 더 위대한 힘(The Higher Power)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는 단계이다. 3단계는 인간보다 더 위대한 힘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하는 단계이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종교적인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재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단계도 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종교적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든다. 11단계는 인간보다 더 위대한 힘과 내가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

해서 우리가 회복의 실전을 이어가도록 힘을 달라고 간청하겠다는 단계이다. 12단계는 ‘일상생활 중에서 계속해서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주위에 있는 중독자 친구들에게 이 원칙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끝이 난다. 12단계는 마치 전도를 떠오르게 만든다.

저자는 이미 이 ‘힐링의 12단계’ 프로그램 안에 인간의 의지와 힘을 초월한 자연이 주는 치유력을 믿고, 거기에 의지해야 한다는 수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종교적 의도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그 안에 인간보다 더 위대한 힘 ‘하나님’의 존재가 묻어나는 것이다. 인간이 위로받고, 치유 받고, 힐링하는 힘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방증이다.

책 〈치유하는 인간〉은 단순히 사변적으로 흐르지 않고 저자의 경험과 살아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쓰였기에 읽으면서 많은 부분 공감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게다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도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삶의 치유가 필요한 성도가 읽으면 바람직한 기준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책이다.

이강현 목사
(양지온누리교회)

두란노 신간

“온라인 세상을 복음화하라!”



〈온라인으로 선교합니다〉

FMnC 선교회 저 | 두란노 | 15,000원

보면 새로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디지털 신대륙, 온라인 세상을 복음화하라!”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세상의 많은 정보가 흘러가는 그곳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책 〈온라인으로 선교합니다〉에 담겨있다.

이 책은 FMnC(Frontier Mission and Computer) 선교회에서 출판했다. FMnC선교회는 IT를 선교의 주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선교단체이다. ‘스마트 선교’라는 새로운 선교 시대를 앞장서서 열어가고 있다. SVS(Smart Vision School) 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스마트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 책에도 SVS의 훈련 내용을 자세하게 담았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비대면 사회가 일상이 된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다양하고 자세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FMnC선교회에서 제시하는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선교 방법을 읽다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가 된 의병장 구연영



구연영 목사

구연영은 의병장 출신 목회자다.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유명한 명문가 출신이다. 구연영 의병장은 1886년 단발령을 계기로 항일투쟁을 시작했다. 이듬해 관군에 의해 경기도 일대의 의병 항전이 끝나게 된다. 고향으로 돌아간 구연영 의병장은 시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남대문 상동교회 스크랜튼 선교사를 찾아가 기독교에 입문한다. 복음을 접하고 목사가 된 구연영 의병장의 독립과 구국을 향한 열정이 단연 돋보였다고 한다.

구연영 목사는 1902년 믿음, 소망, 사랑을 기본 정신으로 한 ‘구국회’라는 애국단체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기독교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다. 구연영 목사가 이천교회 전도사로 부임한 해인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구연영 목사는

전국 각지를 떠돌며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하고 비폭력 저항운동을 주장했다.

의병장 출신 구연영 목사는 일제에 그야말로 눈엣가시였다. 친일단체인 이천 일진회는 ‘그만 없애면 항일운동도, 기독교도 다 없어질 것’이라며 구연영 목사를 죽이기 위해 간간힘을 쓴다. 일진회의 고발로 구연영 목사와 그의 아들 구정서가 일본 순사에 의해 난자당한 뒤 이천 장터 왜나무에 묶여 총살당하고 말았다.

여름 Outreach 그 은혜 속으로!

◆ 남양주 진접다락방 온라인 아웃리치 '샤인 캄보디아'

선교사와 더 가깝게,
선교는 더 뜨겁게

남양주 진접다락방 성도들은 온라인 아웃리치로 박균상 선교사(캄보디아)와 비전과 은혜를 나눴다.

선교사님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음성에 순종해서 이 땅을 떠났다.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는 우리의 사명이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진접다락방 온라인 아웃리치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박균상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섬겼다. 박균상 선교사님은 코로나19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계신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진접다락방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온라인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온라인 아웃리치 방향이 정해지고 총무님의 탁월하고 세밀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아웃리치 주제는 ‘샤인 캄보디아’로 정해졌다. 아웃리치를 위해서 다양한 준비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샤인 캄보디아’로 6행시 짓기 이벤트를 열었고, 아웃리치를 위한 기도모임, 글짓기, 영상 메시지, 찬양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일도 일상불란하게 진행했다.

매주 주일 중보기도회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릴레이 기도를 했다. 이번 온라인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각자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뜨거운 기도와 준비 끝에 대망의 온라인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온라인 아웃리치의 첫 순서는 중보기도였다. 모든 코너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으로 본격적인 온라인 아웃리치를 시작했다. 인사를 나누고 캄보디아 현지를 연결해서 박균상 선교사님의 동역자님과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첫째 날에는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날에는 캄

보디아 현지를 연결해서 성경연구소 사역과 지역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셋째 날에는 박균상 선교사님과 토크쇼를 하면서 선교와 캄보디아 사역에 대해 궁금한 것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며, 온라인 아웃리치를 마무리했다.

박균상 선교사님의 비전은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 재교육이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신학교 교육을 받고 사역을 한다. 그래서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쉽게 이단의 공격에 흔들린다고 한다.

박균상 선교사님은 매년 캄보디아에 많은 교회가 생기지만, 그만큼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고 성경연구소 설립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 성경연구소에서 현지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바로 깨달아서 바른 복음을 전해갈 것이다. 성경연구소에서는 현지 목회자 상황에 맞는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꿈꾸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해 주일학교 교재를 보급하고, 교육하는 교사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성경연구소와 함께 할 지방의 많은 동역자들도 꼭 필요하다. 성경연구소를 세울 부지를 준비했고 이제는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아웃리치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소탈함과 사역에 대한 깊은 고뇌를 들을 수 있었다. 멀게만 느껴지던 선교사님과 가까워지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셔서 감사했다. 섬길 수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이 있다는 사실 또한 감사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임을 새삼 깨달았다. 온라인 아웃리치에 참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 이진택 집사(남양주온누리교회)

◆ 평택온누리교회 성인&대청 연합 아웃리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첫걸음

평택온누리교회 성인&대청 연합 아웃리치팀이 이주민 가정 방문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다.

5월 초 아웃리치팀이 구성되면서 내가 팀장으로 섬기게 됐다. 처음에는 서산과 당진 지역 미자립농어촌 교회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하려고 했다. 지역 교회 목사님들께 연락을 해봤더니 한 교회 사모님이 코로나19에 걸려 지역 주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워 아웃리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웃리치를 못한다는 아쉬움에 빠져있었다. 그러던 중에 대학청년부에서 아산시 둔포면 이주민 교회 차세대를 섬길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성인공동체와 대학청년부가 함께 하는 연합아웃리치팀이 꾸려졌다.

둔포면은 아산시에 속해 있다. 아산 테크노밸리와 농경 단지가 있어서 중국,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러시아어권(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필리핀, 몽골, 동티모르, 캄보디아, 네팔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둔포면 인구 2만1천 명 중에서 3~4천 명이 이주민이 이라는 사실을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알았다.

둔포면은 평택온누리교회에서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곳이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둔포면 인근 이주민 교회들은 각 나라별로 맞춤형 목회를 하고 있다. 평택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은 주로 고려인들이 출석하는 두 교회를 섬기기로 했다.

매주 아웃리치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매일 아침 함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차세대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찬양, 율동, 만들기,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됐다. 둔포면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서 아웃리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아웃리치를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고민 끝에 차세대 아이들을 위한 선물꾸러미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

해 러시아어로 된 전도책자와 생필품을 포장해서 선물하기로 했다.

7월 31일 본격적인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아웃리치 팀장인 나도 과연 이번 아웃리치가 어떤 의미와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맞이했다. 아웃리치팀은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방문했다. 33도를 웃도는 더위때문에 도보로 가정에 방문하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다. 오전 가정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성도님들이 햇볕에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을 보고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생수를 전달했다. “심자기를 지고 가는 느낌으로 다녀왔다”며 웃어 주시는 권사님과 “더워서 더 아웃리치 같다”라고 말해 주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이후에는 이주민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기도했다.

한 이주민 집사님께 “한국에 와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지 않던 시어머님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함께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소와 국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꼈다. 이주민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새삼 깨달았다. 8월 8일에는 고려인 교회의 성도님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와 격려의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아웃리치에 참여하신 장로님께서는 이주민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웃리치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기대한다. 이번 아웃리치가 평택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둔포면 이주민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

/ 김삼선 집사(평택온누리교회)

여름 Outreach 그 은혜 속으로!

◆ W청년부 스페인 온라인 아웃리치 '선교사 블레싱'

축복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 마음



W청년부 지체들이 스페인에서 무슬림사역을 하는 선교사를 축복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스페인 아웃리치가 이번 여름 재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스페인은 W공동체가 2년 전 아웃리치를 진행했던 곳이다. 해마다 스페인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북아프리카 난민들과 휴가철마다 차량을 이용해서 스페인을 방문하는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배부하는 사역을 했었다. 12명의 지체들이 성경 800권을 나눠줬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웃리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나는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다. '단 1권이라도 제대로 읽는 사람이 있다면' 하고 설레는 상상도 했다. 지체들이 직접 포장한 성경책을 들고 길게 늘어선 무슬림 차량에 다가가 안 되는 언어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은혜의 현장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아웃리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몹시 아쉬웠다. 올해도 대면은 어렵지만, 그래도 온라인 아웃리치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번 스페인 온라인 아웃리치는 '선교사 블레싱'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온라인으로 만나서 축복해드리기로 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몰라 서 막막해하고 있었는데 사전기도 모임에서 팀원들과 함께 선교사님의 기도편지를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기도편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무슬림들의 이야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도 안내와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 이야기, 선교사님들을 통해 무슬림들의 마음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기도편지에 빠곡히 적힌 이야기 하나 하나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연스레 선교사님의 사역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볼 수 있었다.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이슬람 강의를 통해서 무슬림들에 대한 공화한 마음이 더해졌다.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국경을 넘는 난민들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 자유하게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 자유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무슬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히 변하게 될 인생을 상상하면서 소망을 품게 되었다.

평생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나를 찾아와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열방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성경배부 사역이 중단되었지만, 프랑스 마리세이유 지역에서의 무슬림 사역과 길거리 여성 및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진주프로젝트 등 새로운 사역들을 끊임없이 개척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나도 마음을 합해 간절하게 기도했다.

아웃리치가 진행될수록 선교사님들을 축복해드리는 시간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졌다. 무뎠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고, 그 땅을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스페인 온라인 아웃리치에 함께한 지체들과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온라인 아웃리치는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듯이 나와 지체들의 마음 문 또한 끊임없이 두드리셨던 아웃리치였다. 지체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다.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보이실지 벌써 기대되고 기다려진다.

/ 서상연 자매(W청년부)

◆ 김포공동체 온라인 아웃리치 '온라인 선교기도모임'

준비하는 손길과 역사하시는 하나님



김포공동체 찬양팀이 온라인 아웃리치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김포공동체는 올해 여름 아웃리치를 온라인 선교기도모임으로 진행했다. 김포공동체 결연 선교사님 가정을 초청해서 그들의 사역과 기도제목을 듣고,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싶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김포공동체 선교기도모임이 다시 활성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했다.

이번 온라인 아웃리치에 선교사님 네 가정이 온라인(Zoom)으로 참석하셨다. 특히 시차가 있고, 인터넷 시설도 열악한 카자흐스탄과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이 참석해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김포공동체 지체들 또한 많이 참석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풍성한 선교기도모임이 되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해보니 각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을 모두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았다.

이번 온라인 아웃리치를 위해 3개월을 준비했다. 그 시간을 되돌아봤더니 준비 시점부터 실행했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여름 아웃리치를 공동체별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참으로 막막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아웃리치를 할 수 있을지 해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다.

우리는 아웃리치 준비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서둘러 아웃리치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매주 토요일 김포M센터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와 방법을 구했다. 줌(Zoom)과 OBS(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및 녹화 프로그램) 연동, 가상카메라와 가상오디오 케이블 설정, 추

가 장비 구입 등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아웃리치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준비했다. 두 번의 리허설을 토대로 큐시트를 만들고, 아웃리치 당일 발생할 변수들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다.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했다. 아웃리치 2주 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됐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 모일 수가 없게 됐다. 결국 우리는 중보기도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온라인으로 하게 됐다. 마지막 기도모임에는 장로님들을 비롯한 공동체 리더십과 권사님들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면이었다면 할 수 없었을 텐데 비대면이라 더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있었다.

드디어 아웃리치 당일, 선교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가족들과 자신들의 사역을 소개해주셨다.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도 공유해주셨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교사님 한 분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돌려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센터를 설명하고 안내해주신 장면이다. 그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현재 여러분은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수지 맞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센터 내부를 천천히 안내해주셨다. 옥상으로 올라가서는 센터가 위치한 주위 환경을 보여주시기도 했다. 그 선교사님 말씀처럼 비록 온라인이지만 진짜 선교지에 와서 구경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손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선교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확신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선교사님들께는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고, 김포공동체 지체들에게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 진승관 집사(김포공동체)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순장학교 수료 간증

나는 어릴 적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잘 나가지 않았다. 오래도록 세상에서의 시간을 보내다가 2017년 4월 온누리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성경공부, 큐티 및 공동체 생활 등을 하지 않아서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공동체 생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그러나 주위의 도움으로 세례를 받고, 다양한 양육과정을 듣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했다.

믿음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즈음, 내가 소속되어 있던 순이 분 순을 하게 됐다. 새로운 순장이 필요했다. 그때 공동체 다락방장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순장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다면서 완강히 거절했지만 다락방장님의 끊임없는 권유를 받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순장학교에 등록했다.

순장학교에 등록하고 바로 순장직을 맡아 순을 이끌었다. 그동안 여러 순장님들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았기에 '그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첫 순예배를 진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순장학교 개강이 늦



권오석 순장(동대문중앙공동체)은 순장학교를 수료하며 순장의 역할을 배우고, 순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어졌고, 순예배도 온라인(Zoom)으로 드려야 했다. 더욱 부담이 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온라인 순예배에서 게스트가 아닌 호스트로 예배를 진행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동영상도 갑자기 멈추기도 하고, 귀를 울리는 '삐-' 소리를 여러 번 들어야 했다.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당황도 했다. 결국 카메라와 스피커, 노트북을 최신 장비로 구매하는 해프

순장으로서의 각오

큐티 나눔, 강의 듣기, 과제 제출 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둘째 주, 셋째 주를 지나면서 조금씩 부담이 사라졌다. 박흥균 장로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셨다. 그 덕분에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큐티에 집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강의를 듣고, 요점 정리를 하면서 조금씩 순장으로 서도 자신감이 생겼다.

10주 동안 강의를 들을 때마다 순장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되고, 순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우게 됐다. 순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지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순장학교 교재를 항상 옆에 둘 것이다. 교재의 내용을 잊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보고 또 보며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모든 순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교만하지 않고, 순종할 것이다. 언제나 기도로 순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순장이 될 것이다. 순예배와 나의 하루를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순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는 순장이 될 것이다. / 권오석 순장(동대문중앙공동체)

코로나19, '성경공부'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바이블아카데미 '우리동네 성지순례' 수료 간증

고등학생 때 '제중원'이라는 드라마를 참 재미있게 보았다. 구한말 서양 선교사가 세운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 이야기였다. 작중 여러 선교사가 등장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낯선과 마찰을 극복하고 주인공들을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이였다. 드라마가 종영한 후에도 그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남았다. 그 이야기들을 찾아가다 보니 선교사들의 생애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

나는 과거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고등학생 때부터 서울 곳곳에 남아있는 기독교 역사유적지를 방문해서 '100여 년 전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보곤 했다. 선교사들의 개인사적으로는 비극적인 장소들이라고 생각했다. 조선 땅에 기독교가 처음 포교 되었을 당시에는 모든 외국인들이 양귀(서양귀신)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많은 선교사가 복음 이 야기를 꺼내 보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이름이 남겨져 지금도 여러 사람에게 기억되고 기념되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그 어느 곳에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낯선 땅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송고한 마음이 드는 한편, 참

예수 많이 닮은 청년들 '선교사'



김성천 형제(CHPLUS청년부)와 조원들이 '우리동네 성지순례' 과제로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고 있다.

아까운 인재들의 아쉬운 죽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흘러간다는 생각과 함께 많은 질문이 들었다.

올해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동네 성지순례'라는 과목을 수강했다. 가장 흥미로운 과목이었다. 4주 동안 서울 안과 밖 총 네 곳의

기독교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100년 전 조선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은 서양 의술과 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인 선교를 먼저 시도하셨다고 한다. 그저 묵묵히 고치고,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조선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현실적인 위로를 건넸다. 양귀라고 배척받던 선교사들은 점점 조선사람

들에게서 신뢰와 호의를 얻었고, 오랜 시간의 신실함을 통해서 복음의 소망을 심으셨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조선인들에게 배움과 치료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실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당시 조선으로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따른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조선사람들을 끝까지 응원하는 것도, 삶 속에서 치유하고, 가르치는 것도, 사랑이라는 이유로 조건 없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예수님의 모습이였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질문이 들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하면 명쾌한 답이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청년들이었다.

미전도종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 나는 20대의 청년이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한다.

/ 김성천 형제(CHPLUS청년부)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중보기도

9월 28일까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중보기도’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매일 오후 7시 아프가니스탄 현지 선교사들이 보낸 현장 소식과 기도문이 한 편씩 게재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는 기도문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된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는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들과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벌써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면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이재훈 담임목사 목회서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연일 뉴스를 통해 알려지는 아프가니스탄 소식은 실로 끔찍합니다. 탈출을 위해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추락하거나 기체 일부에서 죽는 사건, 공항에 버려진 아기, 탈레반에 의해 시작된 공포스러운 통치 등 소중한 인권이 유린되는 비통한 소식들입니다. 이 엄청난 비극은 이 시대 악의 영들이 한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사로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사태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은 탈레반에 의한 점령으로 인해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단순한 쿠데타가 아닌 사회적 악자인 이슬람 여성과 아이들에 대해 매우 조직적으로 악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직후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 곳곳에 탈레반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한 흔적들이 있었으며 젊은이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은퇴한 노년층들이 국가를 위해 다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아프가니스탄 각 부처 장관들과 고위 관료들을 수차례 한국으로 초청하여 대한민국과 교류를 열어주고 기술을 지원하는 등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또 다시 탈레반에 의해 점령된 아프가니스탄은 이전과 또 다른 차원으로 더 심각한 인권 탄압이 예상되며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대와 흡사한 박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현지 목회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로 모인다고 하지만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대책회의로는 회복의 길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역사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전쟁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가 이루어졌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임하는 통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아프가니스탄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기도제목을 가지고 개인별로, 가정별로, 또한 순별로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을 우리의 일로 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도 또한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중보기도로 온누리교회 전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 이재훈 드림

한국창조과학회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교회 창조신앙 바로 세우기’ 8월 27~28일 온라인

한국창조과학회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교회 창조신앙 바로 세우기’ (이하 한국교회 창조신앙 바로 세우기)가 8월 27일(금)부터 28일(토)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27일은 유튜브, 28일은 줌(Zoom)으로 진행된다.

27일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국창조과학회 40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다. 28일에는 ‘

한국교회 창조신앙 세우기’, ‘다음세대 창조신앙 세우기’, ‘창조와 연대’, ‘성경적 변증센터 포럼’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아래의 QR코드로 접속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27일 무료, 28일 1만 원이다.

문의: 02-419-6465

/ 홍하영 기자



하비스트를 위한 릴레이 기도

매일 온누리M센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2021 이주민 추석집회 하비스트 ‘King’s Way’ (이하 하비스트)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한창이다. ‘하비스트를 위한 릴레이 기도’ 영상은 매일 온누리M센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다. 국가별 기도제목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제목이 담겨있다.

하비스트를 위한 릴레이 기도는 이주민을 위한 추석집회가 열리는

9월 21일까지 이어진다. 매일 1개국씩 총 15개국을 위해 기도한다.

9월 21일 온라인(유튜브)으로 막으려는 이주민을 위한 추석집회 하비스트는 언어권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오프라인 원데이 하비스트’가 진행될 수도 있다.

문의: 031-491-9650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극빈 개선사업

여성 가장들에게 식량과 위생용품 지원 및 성교육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여성 가장 가구를 대상으로 극빈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 덕분에 르완다 여성 가장 가구에 작지만 향기로운 꽃이 피고 있다.

르완다 극빈 개선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재봉틀 교육’에는 여성 가장들과 학비가 부족한 학생 2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가

방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 가장들을 위한 식량, 위생용품 지원, 성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르완다 가혼도 마을에서도 주택 붕괴 피해를 본 가정을 위한 주택 건축과 주민들을 위한 주택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22년 상반기 결혼예배 예약

9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양재 드림홀

2022년 상반기(1~7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을 받는다. 9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지하 2층)에서 추첨을 한다.

예약은 예비 신랑, 신부 또는 양가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할 수 있다. 단, 예비 신랑신부는 반드시 등록 교인이어야 한다(타 교회 가능). 예약을 하러 올 때 예약금 50만 원과 교인확인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결혼예배 주례는 온누리교회 목사만 가능하고, 결혼예배는 양재온누리교회에서만 드린다. 문의: 02-570-7505

비전통독 수강생 모집

비전통독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비전통독 과정에는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자 순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교재 <예수그리스도를 초점으

로 읽는 비전통독>(조상연 저)은 개인이 사야 한다. 비전통독 수강신청은 8월 29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16주 동안 성경을 일독하고, 온라인(Zoom)으로 조모임을 한다.

문의: 010-9041-5538

■ 비전통독 수료 소감



/ 김영수 성도(강남A공동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가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주권자 되시고, 전지전능한 분으로 잘 믿고 섬기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다.

나는 20여 년 전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뒤로 교회 안팎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하고 최대한 예의를 다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전한다. 물론 그 뒤는 주님께 맡긴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이다.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90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비전통독’은 매우 의미가 있다. 단지 “믿으세요”라고 힘주어 말하기보다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66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도록 돕는 비전통독은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비전통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는 것이었다. 송석

근 목사님께서 성경 전체를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정리해서 통독하도록 안내해주셨다. 작은 구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의미를 알아가고, 나의 삶 구석구석에 있는 보혈의 은혜를 더 자주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감사하게 되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다.

매주 조원들과 나는 생활 속제는 기존의 나눔과 조금 달랐다. 비전통독의 구호 ‘나.죽.예.사.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좌절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수님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더 알고, 경험하며, 믿고, 의지하도록 돕는 시간이었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나, 회개하면서도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서로 나누며 위로했다. 또 매일 오후 9시를 기도시간으로 정하고 조원들이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비전통독 구호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 바이블아카데미 COC 수료 간증



/ 변혜인 자매(여호수아청년부)

올해 초 예배에서 목사님이 바이블아카데미 광고를 하셨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만든 광고 영상이 흘러나왔다. 그 영상을 재미나게 보던 중에 새롭게 시작하는 ‘크리스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Christian Online Communication, 이하 COC)에 마음이 갔다. 나도 전공을 살려서 유튜브를 브이로그식으로 만들고 싶었고, 내 중심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과 영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등록했다. 기대감이 차올랐고, COC 강의가 어떻게 꾸며질지 매우 궁금했다. 온라인에서 이미 유명한 분들을 어떻게 캐스팅했는지 궁금했다. 캐스팅된 그분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콘텐츠를 꾸몄는지 궁금했다.

큰 기대로 시작한 COC 강의가 실망이 되지 않아서 너무 기뻐다. 내 영과 육이 골고루 채움을 받는 것 같은 시간이었다. 김윤식 목사님, 박위 형제님, 브라이언 목사님, 이종찬 전도사님의 강의를 너무 신선했고 유익했다.

COC의 재미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시대에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을지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무엇보다 COC 강의를 들으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매일, 섬기고 모시고 산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째 진행 중이다. 항상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영상(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주는 제약으로 인해 내가 성전임을 깨우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귀한 때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를 생각하며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 싶다.

영상은 분별없이 보고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시선을 끌기 위해 썸네일(아이디어를 그림이나 문자로 간략하게 시각화한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제목을 과장되게 붙일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시대이다. 쉽게 접하는 영상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주한다면 미혹의 영을 받아 치우치기 쉽다. 그렇기에 COC 강의가 더 크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 유튜브에 관심이 있거나 온라인에 관심이 있는 크리스천 청년이라면 꼭 COC 강의를 들어 보기를 진심으로 추천한다. 지금 주님과 마주함이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생각하면서 말이다.

■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한동훈 성도(강동온누리교회)

딸과 함께 ‘일대일제자양육’

평소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다양한 신앙 서적으로 자녀 양육을 시도하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다. 올해 초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광고를 보면서 아이들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과 성경을 얼마나 깊이 나눌 수 있을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강의를 들으면서 내려놓았다.

우선 아이들을 향한 나의 질문과 말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과 친해지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기본임을 알았다. 다행히 딸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부담 없이 생각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던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 여러 상황으로 5개월이나 지속되었다. 포기하지 않고 따라와 준 딸이 고마웠다.

딸과 큐티를 하면서 즐거운 때, 가장 친한 친구, 고민거리, 꿈 등을 자연스럽게 질문했다. 평소 궁금했던 것을 아는 시간을 시작으로 과정별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재미있는 활

동을 했다.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교재 속 질문에 깊이 있는 대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답형의 대답을 하는 딸의 반응에 따라 내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곤 했다. 하지만 나 역시 죄인이며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고 여전히 성화의 과정에 있듯이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과정임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들도 나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한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 우리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연령을 따라 주기적으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 건강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가정이 될 거라는 소망이 생겼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인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딸과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사역팀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 OBC ‘하나님의 성품’ 수료 간증



/ 이창헌 성도(신용산공동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수록

OBC ‘하나님의 성품’ 과정을 수강 신청하고 나서 짧은 후회를 했다.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이다. 졸린 상태로 강의를 듣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강의에 참석하고 열정적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면서 후회가 사라졌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첫사랑과 연애 같다는 생각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했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귀중한지 모른다.

내가 이제껏 몰랐던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씩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숙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많이 설렐다. 내가 이제까지 알던 단편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히 크신 사랑과 공의와

전지전능한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한 단어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OBC ‘하나님의 성품’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고,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깊어졌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졌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이며, 욕심과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싶다. 기도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녀로 거듭나는 변화가 계속되기를 소망한다. 늦게 얻은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 망설임 없이 바친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처럼, 나 또한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함께 강의 듣고 나눔을 해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는 기적이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장로칼럼

그 당돌함과 고집이 그림다

이병현 장로
(양지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과
첫 만남은 1983년 영
국 런던이었다. 그때
나는 하용조 목사님
에게 “기독교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은 없다고 믿냐?”며
따지듯 물었다. 하용
조 목사님은 그 대답
을 내 아내에게 했다.
하용조牧사는 “이
사람 못쓰겠어”라며 돌아서 교회를 나갔다.
하용조 목사님은 신앙도 가지지 않는 나를 첫 만
남부터 강하게 훈련시켰다.

하용조 목사님이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는 소식을 듣고 온누리교회를 방문했다. 하용
조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가건물에서 예배
를 드리고 있었다. 예배를 드리고 하용조 목사
님을 찾아갔더니 “잘 왔소”라며 짧은 인사로
나를 반겨줬다.

하용조 목사님은 늘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배우
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를 후원하면서 그들의 노하우를 배
우자고 하셨다. 그 뜨거운 선교열정에 평신도
들이 선교사가 되었다. 청빙장로인 조성록 장
로가 일본으로 선교를 떠났고, 최선수 장로와
박승철 장로도 선교사로 나갔다. 하용조 목사
님은 나도 선교사로 나가라면서 매주 탄불도
에 가서 전도를 하라고 했다. 그렇게 1년을 탄
불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탄불도 온누리교회를
세웠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미국으로 전자
제품을 수출할 요량으로 공장을 하나 세웠는
데 하용조 목사님이 계속 교회 일을 맡기는 바
람에 공장이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65세 나이에 내가 태어난 중국 천진으로 들
어가 복음을 전했다. 학원사역과 탄광촌 등지

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슬픈 소식이 들려왔
다. 중국에서 박승철 선교사가 소천한 것이다.
박승철 선교사는 탈북민을 돕기 위해 눈이 내
리는 밤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급히
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박승철 선교
사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이 시신을 내주려
하지 않아서 박승철 선교사가 교제하던 중국
고위층 인사의 도움을 받아 겨우 시신을 양도
받았다. 박승철 선교사를 좋아하던 중국 고위
층 인사는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고 멀리서 장
례식을 지켜봤다. 그리고는 기독교 장례가 이
렇게 귀한지 몰랐으며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
했다. 박승철 선교사의 묘소 앞에서 하용조 목
사님이 내게 “이 옆이 당신 자리야. 살아서 한
국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

내 나이 75세가 되자 후임선교사에게 인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선교본부의 요청
이 있었다. 그 요청을 거절하고 내몽고로 들어
가 사역을 했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주일설교
에서 “이병현 선교사는 돌아오라니 더 멀리갔
다”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고 한다.
몇 년을 더 내몽고에서 사역하다 은퇴했다. 국
내에 들어왔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Acts 29비
전빌리지 옆 공터에서 나를 만나자고 하셨다.
“묘자리까지 봐주면서 중국에서 죽으라더니
왜 불렀소”라고 물었더니 “여기에 선교사 숙
소를 지을 건데 이병현 장로님이 여기 지내면
서 오가는 선교사들 좀 도와요”라며 나에게
또 일을 맡겼다. 그게 하용조 목사님과 나의 마
지막 대화였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했다. 하용조 목사님은 당돌하
면서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당돌함과
고집이 나를 훈련시켰고, 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했다. 하용조 목사님 추모기간을
보내면서 당돌함과 고집이 그리웠다. 아마 살
아계셨으면 지금도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
을 것만 같다.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
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
리라 참으로 너를 도
외주리라 참으로 나
의 의로운 오른손으
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코로나19 팬데믹
이 장기화하면서 가장 많이 찾는 말씀 중 하나
가 이 구절인 듯싶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어느 날 갑자기
출현했다. 과학계에서는 예견된 일이라고 하
지만,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모든 것이 멈추고 막혀 혼돈과 어
둠에 갇혔다.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있다
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나는 아이들을 키울 때 성적이 떨어지는 것
을 가장 두려워했다. 남편에게 교회에 마음이
빠앗겼으니 아이들 공부에 뒷전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 노심조사했다. 첫째인 딸은 공부를
잘한 편에 속했다. 그런데 둘째인 아들은 중학
교에 입학하더니 공부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불안하다고 했다. 우리 부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도 없는 남편이 더욱 두
려웠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까 놀란 새가슴으
로 살았다. 그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나를 찔렀다. 주님은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왕 같
은 제사장으로서 삼으셨다. 그런데 나는 어둠의
그늘에 앉아 놀라고 두려워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
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
라”(요일 4:18)는 말씀을 읽고서는 내가 하나
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있지 않았음을 알았다.

놀라지 말고 놀라워하라!

나는 회개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했
다. 비로소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
다.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예수님을 바르
게 믿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 고백하면 사단이 놀라서 물러간다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다. 나의 영적 무지로 인해 하
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며 소유인 아들을 내 소
유인양 좌지우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아이에
게도 사과했다.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으로, 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
는 예배자로堂堂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
혜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
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
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딤후 1:10).

코로나19 재난으로 건강과 경제생활, 자녀
문제와 인간관계,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두
렵게 한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
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놀라
게 하시고, 죽음을 죽이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
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자기 종의 병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백부장이 “주여, 저
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그 말을 듣고 “이만
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놀라셨
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놀라게 하
라고 청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라
워하실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자. 예
수님을 놀라워하며 그분을 놀라게 하는 믿음
으로 살자. 기적이 일상이 될 것이다.

신앙에세이

장재원 목사
(양재 차세대)

인플루언서(Influe
ncer)란 수많은 매체
를 통해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
람들을 말한다. 우리
는 팔로우와 구독, ‘
좋아요’ 댓글 등을 통
해 이들과 관계를 맺
을 수 있다. 연예인,
작가, 유튜버 혹은 정
치인 등이 인플루언
서인데 이들의 글귀나 작은 한마디가 수만 명
의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한다.

분야는 모두 다르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인플
루언서를 좋아하거나 존경할 때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바로 이들의 언행과 삶의 모습이 대
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들의 삶의 모습이 이전 언행과 매우 다른 이중

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까? 대중들이 실망하고 서서히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도 파급력 있는 인플루언서다. 부
모라는 이름의 인플루언서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투, 표정, 걷는 모습까지 모두
따라 하고 배운다. 부모의 사상과 가치관을 그
대로 가져가고, 더 나아가 신앙의 모습까지도
배운다. 그런데 만약 부모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틀렸다면 따르
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은 부모의 태도를 모방하고 그대로 배우고 익
힌다.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도 되는구나’라는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가정의 신앙교육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잘 가르친 이후 그것

을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가르
침이 독이 되어 돌아온다. 예수님의 교육은 말
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었다. 동시
에 보여주셨다.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과
함께 매일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의 삶을 보여
주셨다. “섬김의 삶을 살라”는 말씀과 함께 가
난하고 병든 자들을 살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아보자. 자녀들이 큐티는 했는지, 예배
를 집중하며 드리고 있는지 체크하기에 앞서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무릎으로 기도하
는 부모의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노출시켜 보
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방법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자. 주일날 예배드
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자녀들과 함께 만들
어 보자.

하나님 안에서 부모 된 우리는 자녀의 신앙
양육을 위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 약
할 때 강함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인플루언서의 SNS 글귀보다 더 영
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썩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
다”(막 4:8).

마음에 좋은 땅을 풀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30배, 60배, 100
배의 열매를 맺어 그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그들이 또 다른 좋은 땅과 나무를 이루게
한다. 자녀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세
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는 선한 인
플루언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영이 교통함으로 우리의 혼과 육이 영을 따라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육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되고, 우리 혼은 혼미하게 되고, 우리의 육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육을 끌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육이 영을 끌고 가는 인생이 됩니다. 육이 혼을 끌고 가고, 혼이 영을 끌고 갑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적 인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발이 있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우리에게 그 기능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서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피시고, 역사를 살피시며, 그 강하신 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보고,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영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상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영혼으로, 영이 살아난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원하신 분이며, 인간에게도 영이 있기에 인간의

영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영과 분리되어 흠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신학자 중에 인간의 영혼도 소멸한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영원한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영원히 지속되는 예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셋째,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여기서 영이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찬양해야 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중보기도에 함께 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전해주는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고, 흠어져서도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교회 역사에서 예배가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건물을 화려하게 하고, 건물 자체를 중요시 하면서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세 교회는 극에 달했었습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중세 교회는 수많은 형상, 아이콘, 심지어 예배당 안에 성인들의 형상까지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건만 건물이 중요해지고, 의식이 중요해지고, 의복이 중요해지고, 화려한 복장을 해야만 훌륭한 예배인 것처럼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어떤 형식을 지켜야만 예배인 것처럼 여기는 것도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형식이 있다면 그것은 형식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유일한 형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홀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격려받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자

예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배가 없는 수많은 영혼과 지역이 있어서 그들도 예배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선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시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란 예배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장소는 본질은 아닙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든 흠어져 예배드리든 어느 곳이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양극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영과 진리로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회복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내가 만난 하나님

정우성 총무
(양재창조과학선교회)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2월 교회 수련회였다.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부모님은 넌 크리스천이었고, 내가 동생들 데리고 교회 가는 것을 몹시 싫어하셨다. 정말 싫어하셨다. 그래서 꽤 힘들었다. 하지만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처음에는 이상했고 나중에는 놀라웠다. 그래서인지 교회 가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 행복했다. 그때 믿음이 생겼고, 성경이 믿어졌다. 창세기도 믿어졌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졌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졌다. 내 부족한 기도 응답하시는 존재가 성경 속의 창조주라는 것이 믿어졌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왜 그게 가능했는지 설명은 불가능하다. 은혜다. 전적으로 은혜다.

나는 지금 IT업계 19년차 반도체 개발자이다. SSD라는 데이터 저장 장치의 컨트롤러를 만든다. 당연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수십 명의 팀원들과 함께 기능을 구현하고, 그 기능이 잘 구현되는지 검증해서 세상에 내놓는다. 많은 테스트를 하는데도 종종 버그가 있기 마련이다. 물론 어떻게든 그 이슈를 해결한다. 이슈 해결도 실력이다. 설계라는 일에도, 이슈를 해결하는 일에도 설계자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더 복잡한 기능일수록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복잡도가 높은 목적을 달성하고 싶을수록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도체 설계자는 반도체 칩에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 회로를 만들어 넣는 일을 한다. 손톱만한 칩에 목적을 심는 일이다. 그래서 그 목적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도록 할까를 고민한다. 날마다 고민한다. 날마다 더 잘하려고 궁리하고 생각하는데도 늘 어렵다. 신기한 일이다. 부족한 설계자인 셈이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렘 1:5).

하나님의 목적과 준비 그리고 순종

참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었다. 존재하기도 전에 알다니, 그런 게 가능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칩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내 생각 속에서 먼저 존재하는구나!’

머릿속에서 뭔가 순간 번쩍었다.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나니 저 말씀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었다. 예레미야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먼저 존재하는 것이구나. 예를 들어 사자를 조각하고 싶은 조각가가 있다고 하자. 숙련된 조각가였던 그가 가로 1m, 세로 1m, 높이 2m짜리 큰 바위를 하나 마련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바위다. 조각가가 바위를 찢어본다. 열심히 찢어본다. 아직도 세상에는 사자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각가의 마음속에 먼저 사자상이 존재한다.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조각가가 바위 중에 사자가 아닌 부분을 쪼아낸다. 그러면 조각가의 마음속에 존재하던 사자가 비로소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 세상에 예레미야가 아직 없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먼저 존재한다. 열방의 선지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 예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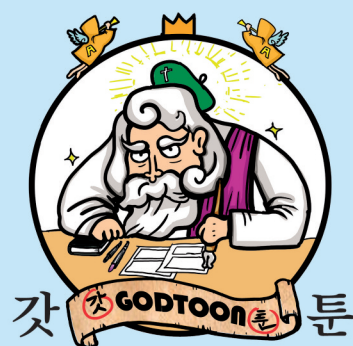
미야만 그럴까? 당연히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먼저 존재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

나 같은 부족한 인간 설계자도 무언가를 만들 때 무턱대고 만들지 않는다. 정말 많은 준비를 한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분은 창조주이시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준비가 예레미야의 삶에 담기게 된다. 그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준비가 인간의 삶에 담길 수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일이다. 겁나도록 흥분되는 일이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준비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다.

그해 2월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결심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노력하고 있다. 은혜다. 전적으로 은혜다. 그때는 그것이 나의 결심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였다.

다음세대를 위한 CGNTV 키즈 콘텐츠 자녀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카툰’으로 재미있게 만나는 큐티



유튜브 '갓툰' 채널 검색



‘게임’을 통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큐티



유튜브 'CGNTV KIDS' 채널 검색



매주 주일 오후 1시 40분 방송

CGNTV 키즈 콘텐츠는 모두 **풍덩**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